

재외동포의



2012 10월호

특집 : 4~7

젊은 동포 리더들 모여
한인사회 미래 토론하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 22개국 106명 참석 성황
“야호~” 조국의 강변길을 자전거로 누비는 그들



우리가 만든 우리의 모습 장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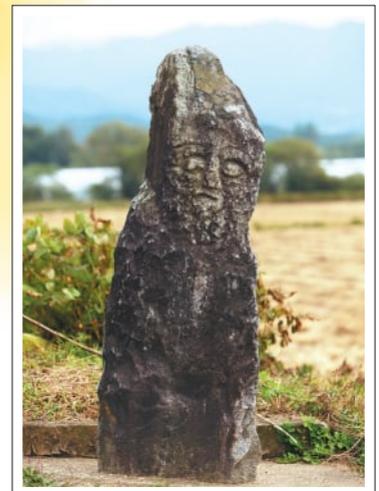


우리 조상들의 미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장승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민속물 중 하나로 여전히 적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장승은 이전에는 마을 어귀에서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 역할을 했다.

장승은 어떻게 보면 익살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괴기스럽고 근엄해 보인다. 벽수, 돌미륵, 당산 할아버지(할머니), 돌하르방 등 명칭도 지역마다 다르다.

장승의 형태는 선사 시대부터 한국인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수호신의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장승은 전통 기념품 가게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 전국 곳곳에는 장승 공원이라고 해서 장승을 전시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우리가 장승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것은 그 모습이 우리 민중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목차 2012 10월호

2	한국의 얼	우리가 만든 우리의 모습 장승
3	목차	
4	특집	젊은 동포 리더들 모여 한인사회 미래 토론하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 22개국 106명 참석 성황
8	기획	“한민족 화합 한마당” 제6회 세계한인의 날 훈·포장, 열린 음악회 등 풍성한 행사
11	한민족공감	韓 국가경쟁력 19위로... 5계단 ‘경충’ 보건·초등교육, 기업혁신·상품시장 효율성 크게 개선
12	화제	한·중 우호 선린의 다리역할 ‘조선족’ 양국 수교 20년 “중국동포의 미래는 밝다”
14	현장의 목소리	재일민단 청년회 “한일관계 가교 역할 하겠다” 모국연수단 250명, 지난달 뿌리 찾기 모국체험 “나는 한국인, 군 입대는 내 생애 가장 잘한 결정” 차세대 재외동포 6년간 1천여 명 군복무
16	지구촌 통신원	멕시코에서 재확인한 ‘K팝’의 힘 “마니아층 열기 무서울 정도... 성장 가능성 충분”
17	한글학교 탐방	다른 소수민족과 화합하는 뉴질랜드 ‘와이카토 한국학교’
18	OKF뉴스	이사장 미국 앵커리지한인회관 개관식 참석 외
20	글로벌 코리아	“재외국민 보호 위한 법률지원체계 마련하겠다” 유영일 세계한인변호사회 신임회장
21	우리말 배워봅시다	
22	동포문학	중간선 신유니(중국) 초등부문 최우수상
24	나의 살던 고향	웅기의 숨소리... 고래의 노랫소리... 울산
26	재단공지 및 독자후기	



표지

‘제15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한 22개국 한인 106명은 10월 5일 오후 경기도 여주군 강천보의 한강문화관을 찾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변길을 자전거로 달려 모국의 산하를 몸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발행인: 김경근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젊은 동포 리더들 모여 한인사회 미래 토론하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 22개국 106명 참석 성황

차세대 리더, 지구촌 한인들에 '큰 힘'

“모국과 재외동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차세대 여러분들이 성장해 모국과 지구촌 곳곳에 있는 한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재외동포재단 김경근 이사장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2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막식에 참

석한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에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당부했다.

재외동포재단이 5일까지 나흘간 주최하며,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날 차세대 대회 개막식에서 김 이사장은 “이번 대회는 차세대 여러분들의 무대인만큼 글로벌 코리아에 대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열띤 토론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의 정치·경제·문화·법조·언론·사회 부문 등에서 활약 중인 재외동포 차세대리더들을 초청해 한인사회의 미래를 논의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행사다. 개막식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파라과이 등 22개국에서 온 차세대 동포 등 106여 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성 김 주한미국대사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차세



1

대 한인들을 만나게 돼 반갑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성 김 대사는 이어 “내가 젊었을 때도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많이 교류하고 모국에 대해서도 알게 돼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역임한 심윤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인사 말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차세대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 반갑다”고 말하며, 소속 지역구인 강남구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연계해 흥미롭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심 의원은 “미래 리더들이 될 차세대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 참여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서로 간에 지식과 정보도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에는 입양아 출신의 원정희 미국 CBS 뉴스 PD, 가수 싸이의 미국 진출을 도운 콘텐츠 프로듀서 이규창, 신자영 미국 LA 검찰청 공보관, 김미사 일본 도쿄지방법원 실습판사 등이 참



2

- 1 10월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2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 개천철인 10월 3일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이 박기태 반크(VANK) 단장과 함께 독도 주권을 알리는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가했다.

지난 199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차세대 대회에는 지금까지 700여명이 참가했고, 역대 주요 참가자로는 리아서(Rhea Suh) 미국 연방 내무부 차관보(2011), 윤경복(Kyoung B. Yoon) 미국 한미커뮤니티재단 사무총장(2010), 이지연(Melisa Lee) 뉴질랜드 국민당 국회의원(2009), 연아마틴(Yonah K. Martin)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2009), 김성철(David Kim) 워싱턴DC 교통국 장관(2007), 최준희(Jun Choi) 전 뉴저지 에디슨시 시장(2008), 마크킴(Mark Keam) 버지니아주 하원의원(2007) 등이 있다.

비빔밥 만들며 독도 수호 다짐

대회에 참가한 차세대 한인들은 개천절을 맞아 3일 오후 ‘독도 비빔밥 퍼포먼스’를 펼치며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글로벌 코리안 세계 미래를 담다’라는 주제로 열린 ‘2012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차세대포럼 등을 통해 지역별 차세대 현안, 차세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집중 논의했으며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과 한인의 날 기념 KBS 열린음악회 공연을 관람하고, 총리공관을 방문, 경복궁 관람, 4대강 자전거 투어 등 모국을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 박기태 단장의 독도 관련 영상 소개와 독도의 역사 등을 알려주는 강의로 시작됐다.

“독도는 우리에게 비빔밥처럼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존재”라고 비유한 박 단장은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꿈수에 맞서려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독도를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류사회 리더로 성장하는 한인 차세대가 독도 홍보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강의에 이어 독도 사진을 배경으로 맨 위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Dokdo Is Korean Territory!)’라는 한글과 영문 슬로건을 표기한 대형 걸개그림이 중앙 무대에 내걸리고 그 아래에서 대회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 땅’을 외쳤다.

대형 비빔밥 통이 등장하고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박기태 단장, 각국 참가자 등은 대형 주걱을 들고 한데 어우러져 밥과 나물을 비빔 뒤 완성된 비빔밥을 함께 나눠 먹으며 ‘독도 지킴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에서 온 박송찬 씨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며 역사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우호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3

- 1 김황식 국무총리가 10월 4일 오후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자들을 접견,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은 고국 탐방의 하나로 경복궁을 방문해 문화유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 3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포럼을 통해 각 지역 현안,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한 차세대 역할, 차세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외동포 2세인 김아나(여) 씨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차세대의 역할이 새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한데 어우러지고 버무려져서 맛을 내는 비빔밥처럼 한인 차세대들도 서로 네트워킹하고 뭉칠 때 더 큰 힘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포먼스에 앞서 손지애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의 강연을 들은 참가자들은 이날 차세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뒤 여의도 KBS홀에서 ‘세계한인의 날 기념 KBS 열린음악회’를 관람했다. 4일에는 ‘한인 이주사’ 강연을 듣고 차세대 포럼을 열었으며 5일에는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참석 후 경기도 여주 강천보로 이동해 4대강을 자전거로 달리는 체험을 했다.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 ‘집중 토론’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포럼을 통해 각 지역 현안,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한 차세대 역할, 차세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차세대 대회가 매년 고국에서 개최되어 왔지만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호주에서 참가한 배선혜 변호사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모일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로 소

모임을 결성하고 확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자”고 제안했다.

원정희 CBS 프로듀서는 “1년에 한 번씩 동창회를 열자”며 “동포재단의 후원도 받고 십시일반으로 모으면 작게라도 모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얼굴을 맞대고 교류를 해야 강한 유대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CIS지역과 일본에서 온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참여해오다보니 과거 참가자들과 연락이 거의 없었다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의 OB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포재단에서 주기적으로 역대 참가자들도 초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사황 일본 민간청년회 회장은 “차세대 리더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5년 10년 뒤에 모습이 무척 궁금하다”며 “올해로 15회째 인데 20회 때는 홈커밍 행사도 함께해서 역대 참가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올해 대회는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싱가포르에서 참가한 박숙경 포르쉐 마케팅 이사는 “포럼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 수 있어서 내실 있는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창**

제6회 세계 THE 6th KOREAN DAY 한인의 날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김황식 국무총리가 10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재외동포 유공자 168명 중 12명에게 훈·포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민족 화합 한마당” 제6회 세계한인의 날

훈·포장, 열린 음악회 등 풍성한 행사

전 세계 한민족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이 '함께 하는 세계 한인, 가슴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10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국가기념일인 '세계한인의 날'은 전 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동포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됐다.

외교통상부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는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와 김황식 국무총리,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정부·관련기관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150여년이 넘는 해외이주 역사 속에서 우리 한인들은 성공적으로 각 거주국의 모범적 시민으로 정착했다”며 “한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10월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지정한지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재외동포재단은 ‘함께 하는 세계한인, 가슴 뛰는 대한민국’ 이란 슬로건을 정하고, 재외동포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국가 기념일인 세계한인의 날은 내국민에게는 재외동포의 소중함, 재외동포에게는 모국의 관심을 알리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07년 제정됐다.

이어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재단은 모국과 재외동포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동포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훈·포상자 ‘봉사에 매진하겠다’

김항식 국무총리는 재외동포 유공자 168명 중 12명에게 훈·포상을 수여했다.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 차관보 직급까지 올랐던 시각장애인 고(故) 강영우 전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보와 유재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중앙본부 상임고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다.

이밖에 기업인으로서 글로벌 경제협력을 주도한 류진 풍산그룹 회장과 한일 친선 교류에 기여한 이시향 민단 중앙본부 상임고문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이밖에 주요 인사로는 우중호 한일협력위원회 이사(국민훈장동백장) ▲문대동 미국 삼문그룹 회장(국민훈장동백장) ▲김형곤 재태국한인회 회장(국민훈장목련장)

▲박정길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초대회장(국민훈장석류장) ▲김점배 재오만한인회 회장(국민포장) ▲오한도 러시아 피로고프 국립의과대학 의료센터 센터장(대통령표창) ▲미셸 박 스틸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회 부위원장(대통령표창) ▲홍승표 재중국한국인회 부회장(국무총리표창) 등이다.

포상 수여식 후 김항식 총리는 격려사에서 “동포사회와 모국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말씀 드린다”며 “언제나 조국이 잘 되길 기원하고, 힘들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전세계 재외동포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 할 것이며, 특히 차세대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모국과의 유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온정성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포 여러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이며 힘”이라며, “우리는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코리아 루트’를 개척해 나가야 하며, 한



故 강영우
국민훈장무궁화장



유재근
국민훈장무궁화장



류진
국민훈장모란장



이시향
국민훈장모란장



우중호
국민훈장동백장



문대동
국민훈장동백장



김형곤
국민훈장목련장



박정길
국민훈장석류장



김점배
국민포장



오한도
대통령표창



미셸 박 스틸
대통령표창



홍승표
국무총리표창



김 총리는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곧 동포의 긍지와 자랑이며 동포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힘”이라며 “정부는 동포가 자부심을 느끼고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3일 저녁에는 ‘한인의 날 기념 KBS 열린음악회’가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에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가 특별출연 해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고국을 찾은 한인들에게 선사했다.

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재외동포 유공자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유재근 일본 삼경봉사 회장은 인터뷰에서 “참 고맙고 영광스럽다”며 “바깥에 있지만 늘 우리나라가 잘되기를 바랐다. 나라를 생각하는 동포들의 마음을 국민도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수상 소감을 먼저 털어놓았다.

목련장을 수상한 김형곤 태국한인회 회장은 “물난리와 가뭄 무더위에 시달린 한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홍명숙 한미우호총연합회 이사는 “필라델피아 한인회를 통해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력이 닿는 데까지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김광자 회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회장은 “현재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위한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세계 각국 재외동포와 김황식 국무총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안홍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이학재 의원,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오공태 민단 중앙단장, 문하영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박상원 민주한인재단 총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한인 잔치 마당 ‘열린음악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앞서, 3일 저녁에는 ‘한인의 날 기념 KBS 열린음악회’가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피아니스트 서혜경, 심수봉, 부활, 정인, 적우, 허각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과 국내외 동포들이 한 자리에 어울려 감동을 더했다.

음악회에는 미주한인재단을 비롯해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회장 김근하), 이중동한인회연합회 회원 등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국을 찾은 동포들이 객석을 메웠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석중인 차세대 리더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심수봉과 적우는 무대에 올라 등 한인 1세대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노래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는 아름다운 클래식 곡을 연주해 가을밤의 정취를 깊게 했다.

허각, 정인을 비롯한 아이돌의 무대도 이어져 젊은 차세대들의 흥겨운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공연에 참가자들은 때론 눈을 감고 선율을 음미하기도 하고 열띤 박수와 함창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재외동포재단은 관계자는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슬픔은 흥으로 달래고, 즐거움은 흥에 겨워 배로 기뻐하는 ‘흥의 민족’이라 불렸다”며 “한민족의 식지 않는 열정과 재능을 재확인하고, 전 세계 한민족 소통과 희망의 장으로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장**

韓 국가경쟁력 19위로... 5계단 '굉충'

보건·초등교육, 기업혁신·상품시장 효율성 크게 개선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9위에 올랐다. 작년보다 5단계나 뛰어올랐다. 보건·초등교육과 상품시장 효율성 부문이 개선된 덕분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에 이어 5위다. 3대 평가분야 모두 순위가 상승하며 전체 순위를 끌어 올렸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4개국 가운데 19위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07년 11위에 오른 뒤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하락했다가 올해 전년보다 5단계 상승했다. 19위는 2009년 순위와 같다.

3대 평가분야별 순위를 보면 기본요인이 19→18위, 효율성 증진은 22→20위, 기업 혁신·성숙도 18→17위로 모두 올랐다.

중간부문별로는 보건·초등교육이 15위에서 11위로, 상품시장 효율성이 37위에서 29위로 크게 개선됐다.

취약했던 분야인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에서 71위로 올랐다. 제도적 요인(65→62위), 노동시장 효율성(76→73위), 기업활동 성숙도(25→22위)는 소폭 상승했다.

세부분야로는 보건·초등교육에서 기대수명(17→15위)과 초등교육의 질(22→14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상품시장 효율성은 시장 경쟁의 강도(15→11위), 고객 지향도(16→9위), 창업 시 행정절차 수(78→29위), 창업 시 소요시간(58→25위) 등의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금융시장 성숙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대출의 용이성(115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10위), 은행 건전성(98위) 등 '열등생' 처지를 벗어나지 못한 분야도 적지 않았다.

고등교육·직업훈련에서 고등교육 취학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



10월 5일 제1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참석자 보고를 듣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해도 1위를 유지해 눈길을 끌었다. 수학·과학교육의 질은 12위에서 8위로,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도는 10위에서 7위로 각각 상승했다.

국가별로 스위스가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싱가포르는 작년과 같은 2위, 핀란드는 한 계단 올라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순이었다. 미국은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7위를 기록했다.

덴마크는 12위, 노르웨이는 15위에 오르는 등 북유럽 국가가 강세를 보였다.

아시아 국가에선 홍콩이 9위, 일본이 10위에 올랐다. 중국은 작년 26위에서 올해 29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기재부는 보건·초등교육과 상품시장 효율성 부문의 개선에 힘입어 2009년 순위를 회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과거부터 취약 부문으로 꼽히는 제도적 요인,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한·중 우호 선린의 다리역할 ‘조선족’

양국 수교 20년 “중국동포의 미래는 밝다”



9월 3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서 열린 자치주 설립 60주년 경축대회에서 학생들이 대형광장공연 ‘연변찬가’를 선보이고 있다. 공연에는 2만2천여명이 참가해 장구춤, 상모춤, 부채춤 등 집단무용과 카드섹션을 선보였다.

한 국과 중국이 8월 24일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맞았다. 9월 3일에는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설립 60주년 기념 행사가 성대히 열렸다.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중국동포) 사회는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고 모국을 찾는 이들의 발길도 늘어났다. 중국의 조선족 밀집지역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50만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조선족은 단순 노무직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어서 한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급성장한 ‘조선족’

1992년 8월 역사적인 한·중 국교 정상화는 동북 3성의 조선족 동포들에게 ‘반세기 가뭄’의 끝을 알리는 ‘단비’였다.

오랜 역사적 유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 정부 수립(1949.10)에 이어 6·25 전쟁까지 치르면서 양국 간 적대관계가 지속되자 한국과 조선족 사회의 거리는 서방의 어떤 나라보다도

멀어졌다.

그러나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는 모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급진전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같은 언어를 쓰고 한민족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조선족은 모국과의 활발한 교류와 왕래 등에 힘입어 중국 내 50여개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이뤘다.

한국도 재중동포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에 힘입어 투자·교역 및 정치관계 등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등 호혜적인 결실을 봤다.

수교 후 한국 기업들의 ‘차이나 러시’ 가속화는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한국과 연고가 있는 지린(吉林)·랴오닝(遼寧)·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포 집단거주 지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 한국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동포들이 한국계 기업에 노무직뿐 아니라 통역 등으로 일했고 한국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식당과 유흥업소도 번성했다.

7월 14일자 흑룡강신문에 따르면 올해로 설립 60주년(9.3)을

맞는 엔벤자치주의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이 652억위안, 1인당 생산총액은 2만9천782위안으로 1952년에 비해 각각 61배, 21.5배 늘었다.

수출입통계 작성을 시작한 1954년 38만 달러이던 무역 규모도 2007년 1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8억5천만달러로 늘어나 무려 5천배 증가했다.

엔벤주의 대학생 수는 2만2천명으로 1952년의 19.6배에 달했다.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은 각각 9개, 10개로 느는 등 교육과 문화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동포들이 '코리아 드림'을 좇아 본격적으로 한국을 찾게 된 것도 수교가 가져온 현상이다.

동포들은 국내 3D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993년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2001년부터 '1년 연수, 2년 취업')와 방문 취업제(2007년) 등에 힘입어 단순 노무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 대거 한국행 비자를 신청했다. 수교 이후 한국을 다녀간 조선족은 복수 방문자를 합쳐 200만명을 훌쩍 넘어섰고 이들 상당수가 연변 출신이다

이들은 힘들게 번 돈을 고향으로 송금해 중국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조선족인터넷매체인 '조글로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해외 노무자들이 엔벤조선족자치주로 보내는 돈은 10억 달러로 자치주 재정 총수입의 2.5배에 달한다.

그러나 조선족이 줄지어 한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입국자가 브로커 등에 속아 귀국을 포기,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다. 수교 후 주로 청년층이 구직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서울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로 떠나면서 조선족 사회는 가족해체, 농촌 공동화 현상, 조선족 학교 급감, 청소년층의 정체성 상실 등을 겪어야 했다.

한국내 조선족 위상 '3세대' 등장으로 높아져

9월 1일 중국 옌지에서 열린 한·중경제포럼에서 가사이 노부유키 아시아경제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이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뤄낸 데는 조선족을 비롯한 재외 한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며 수교 이후 중국과 한국에서 조선족이 산업인력으로 또는 사업 파트너로 기업의 성장을 도왔다고 밝혔다.

국내로 들어온 조선족들은 부모 세대들의 노력으로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유학했거나 중국의 명문대를 나온 '3세대'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평판도 서서히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실제 2008년부터 조선족에 대해서도 허용된 재외동포(F-4) 비



9월9일 재한조선족연합회가 주최한 문화공연이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유봉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은 "조선족 자치주 성립 60주년과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조선족의 단결과 발전 그리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자 가운데 우수한 인재(F-4-2)로 분류돼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 지난해 말 현재 2만9천617명에 달한다.

이들은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유학해 석·박사가 된 다음 취업을 하거나 중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전문가로 특별 채용돼 자리를 잡고 있다.

30~40대의 3세대들은 주로 대학교수를 비롯해 증권사 애널리스트, 정책연구원·기업의 연구원, 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부모세대처럼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뽐뽐이 명함에 한글 이름과 중국 이름을 병기한다. 한국 국적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모와는 달리 국적에 집착하지 않는 특징도 있다.

하나대투증권에서 중국 증시 담당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이기용(32) 씨는 "주위의 전문직 친구들은 회사에서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무시를 받는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경쟁력을 갖춘다면 조선족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조선족들이 스스로 발전을 위해 좀더 노력한다면 장기적으로 조선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팀장은 조선족 사회의 최대 당면 과제인 인구 감소와 청소년들의 정체성 상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조선족들이 생활 터전에서도 돈벌이할 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 언어 교육과 학교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체류 중인 조선족들이 화교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한인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재일민단 청년회 “한·일관계 가교 역할 하겠다”

모국연수단 250명, 지난달 뿌리 찾기 모국체험

한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뿌리 찾기 모국연수에 나선 250명의 재일동포 차세대들은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를 푸는 데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산하 청년회의 서사황(34) 회장은 9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촉발한 양국 관계가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서로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 때문에 갈등이 증폭된 만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문화를 개방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펼치는 등 관계 개선에 힘쓰면 신뢰가 깊어지고 갈등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 회장은 이어 “우리가 차세대 일본인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려주고, 모국의 같은 또래에게는 일본의 참모습을 전해줘 상호 이해를 넓혀 나가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모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일한국인 청년 모국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18~35세로 구성된 민단 청년회원들은 9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수원, 철원 등지에서 모국을 체험했다. 이들은 17일 태풍 ‘산바’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철원 비무장지대(DMZ)와 수원 삼성전자 등지를 둘러보며 모국의 안보 상황과 발전상을 체험했다.

이법자(32·여) 아이치현지부 회장도 “일본이 교과서 등을 통한 과거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진정한 한일 우호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며 “일본 역사 바로 세우기에 재일동포 청년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재일동포 청년이야말로 누구보다 양국 관계의 개선을 절실하게 바라는 만큼 이번 모국 체험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청년회원들은 9월 17일 태풍 ‘산바’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산업사찰과 안보현장을 견학하며 모국배우기에 열중했다. 사진은 수원 삼성전자를 방문한 재일동포 청년들.

확실히 찾아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국 배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모국의 발전상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털어놓은 가나가와현 출신의 김형(34) 씨는 “재일동포 차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애국교육이 아닌 민족교육”이라며 “청년들도 한글과 한국 전통문화 등 모국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청년회원은 방한 이튿날 특별강연을 통해 선조의 이주사와 재일동포 현황 등을 배운 뒤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 등을 견학했으며 18일 파주에서 일일 병영체험을 한 뒤 돌아갔다.

민단은 지난 2010년부터 차세대 동포사회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초·중·고교생, 청년회원, 청년 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모국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민단 임삼호 부단장은 “일본에서 태어난 차세대 동포들은 현지화가 이뤄져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연수를 계기로 모국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정체성을 깨닫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

“나는 한국인, 군 입대는 내 생애 가장 잘한 결정”

차세대 재외동포 6년간 1천여 명 군복무



재외동포 가운데 국외영주권을 가진 51명이 자진 입대해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받았다.

스스로 군 입대를 선택한 재외동포(국외영주권자)가 최근 6년 사이 1천명을 돌파했다. 육군훈련소는 지난 2007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주간의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천38명의 군 입대 국외영주권자를 배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외영주권을 가진 입대자를 연도별로 보면 2007년 113명, 2008년 147명, 2009년 198명, 2010년 263명, 2011년 251명, 올해 66명 등이다.

이들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지만,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려고 스스로 입대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육군훈련소는 국외영주권자가 늘어나자 입대자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군 복무에 적응하도록 1주일간 의식주 체험과 한국사 강의, 군대예절 학습, 훈련장 견학, 체력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육군훈련소가 최근 훈련 중인 국외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입대 동기를 묻는 설문 조사 결과, “한국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입대했

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 9월 26일 51명의 국외영주권자가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마쳤다. 이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21년을 미국, 과테말라, 볼리비아, 이탈리아, 헝가리 등 문화와 언어가 다른 18개국에서 살다 왔다.

신병 들은 오랜 외국 생활로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기 쉽지 않았지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힘든 군 생활을 이겨내고 있다고 육군은 전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본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다가 입대한 이현준(30) 훈련병은 “군대 갔다 왔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당당하게 대답하기 위해 자원입대했다”고 말했다.

일본 영주권자인 홍진기(21) 훈련병은 “군 생활을 통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고 나의 미래를 개척해보고 싶어 입대를 결심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김범준(26) 훈련병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입대했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이들 훈련병은 지난 9월 3일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충남 논산시 연무읍의 농가를 찾아가 찢긴 비닐하우스와 무너진 인삼밭을 일으켜 세우며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다.

미국 해병대에서 7년간 복무하고 전역한 다음 다시 한국 육군 훈련소에서 입소한 김수환(26) 훈련병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떳떳하게 살려고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지금까지 제가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다”고 당당히 지원 동기를 밝혔다.

5주간의 신병 훈련을 마친 51명의 동포 병사들은 9월 29일 근무하게 될 부대로 배치된 뒤 고국에서의 첫 추석 명절을 군에서 맞이했다. **[장**

멕시코에서 재확인한 ‘K팝’의 힘

“마니아층 열기 무서울 정도… 성장 가능성 충분”



1 멕시코시티 아우디토리오 블랙베리에서 열린 그룹 JYJ 멤버 김준수의 단독 공연에서 멕시코 팬들이 열광하고 있다.

2 JYJ 멕시코 팬클럽 회원들이 9월 6일 오후 멕시코시티 내 멕시코 공원에서 JYJ 멤버 김준수를 위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400여 명의 팬들은 소규모 악단의 반주에 맞춰 전통 민요를 부르며 김준수의 한국가수 최초 멕시코 단독 공연을 축하했다.

그룹 JYJ의 김준수는 지난 9월 6일 오후 멕시코시티 아우디토리오 블랙베리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멕시코 단독 공연을 열었다.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남미 투어의 서막을 알리는 공연이기도 했다. 좌석 3천 석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공연 내내 팬들의 환호와 열띤 성원은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한국 스타에 대한 멕시코 팬들의 관심은 지난 2002년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방영이 불씨가 됐다. 드라마가 전파를 타면서 주연 안재욱은 멕시코에서 최고의 한류 스타로 떠올랐고, 그에 대한 관심은 다른 한류 스타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4월 멕시코 한국문화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한류 팬클럽을 조사한 결과 76개 팬클럽에 약 5만 5천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반은 안재욱, 장동건 등 배우들 위주였다면 최근 수년간은 K팝 팬들이 부쩍 들었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JYJ 뿐 아니라 슈퍼주니어, 빅뱅, 투에니원 등이 인기가

지난달 열린 K팝 페스티벌 예선전에만 67개 팀이 지원했다. 문화원은 K팝 팬들을 위해 이달부터 노래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남교 멕시코 한국문화원장은 “K팝은 10~30대 초반에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으며 아직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한 단계는 아닙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K팝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많이 향상됐다”고 전했다.

알레한드라 아리자노(19·여) JYJ 팬클럽 회장은 “JYJ 전체 팬클럽 회원 수는 1만 명에 달한다”며 “회원들은 대부분 17~27살 여성들로 주 1회 만나서 멤버들의 출연작을 보거나 문화원에서 한국 영화를 관람한다”고 말했다.

팬들이 한국 스타를 접하는 통로는 역시나 인터넷이다.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 공연 영상이나 뮤직 비디오를 보고 한국 스타들에게 빠져들기 시작한다.

멕시코 유력 민영방송사 TV 아즈테카(azteca)의 프로듀서 알렉스 리퍼트는 “K팝은 새롭게 등장한 트렌드”라며 “마니아 집단에 조금 한정된 부분도 있지만 현상으로 봤을 때는 신드롬에 가깝다”고 평했다.

멕시코 한인 2세 김유미(28·여) 씨는 “K팝 팬은 아직 마니아층이지만 점점 늘고 있다. 요즘 사이의 ‘강남스타일’도 인기가 많다”며 “마니아층의 열기는 무서울 정도다. 내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한국인인 걸 알고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K팝 열기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남교 멕시코 한국문화원장은 “K팝 확산을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국학이나 한국어를 통해 한국 문화에 전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

다른 소수민족과 화합하는 뉴질랜드 ‘와이카토 한국학교’

뉴질랜드 와이카토 한국학교는 다른 곳의 한글학교와 달리 2004년도에 개설된 ‘현지인’ 반이 있다. 고정미(52) 교장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중 하나가 현지인들과 다른 소수민족과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의 연대만큼 현지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주말 한글학교지만 한국어 외에 역사와 문화, 전통, 그리고 정체성을 가르치기에 한국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다.

와이카토 한국학교는 1995년에 이민 초창기에 한인회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2년 후인 1997년부터는 분리되어서 단독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학교는 90여명의 학생과 25명의 교사가 매주 토요일 4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 학생은 만3세부터 15세(중3)까지로 5개 반으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다.

자체 건물을 갖지 못하다보니 지난 16년 동안 7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고 교장은 1999년 학교와 인연을 맺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장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는 “한글학교는 제가 키워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 꿈나무들을 되돌릴 수 있는 통로라는 생각으로 섬기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과 2009년 경인교대에서 자원봉사를 와서 다양한 전통놀이 기구를 기증하고 가서 수업교재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학교는 현지인들과 화합을 위해 2년마다 소수민족 민속놀이를 개최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학급마다 보조교사를 4명씩 활용하고 있는데 졸업생이나 학부모가 돕고 있어서 다양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고 교장은 “중요한 것은 우리말을 배우는 것보다 우리문화를 배우고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땅에 온 문화적 충격이 아이들에게 더 클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원래 유치원 교사가 직업인 그는 주말마다 한인 자녀와 외국인 등 110여명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더욱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고씨는 2008년 경희사이버대 한국어문화학과에 편입, 작년 8월 졸업했다.



뉴질랜드 와이카토 한국학교는 현재 90여명의 학생과 25명의 교사가 매주 토요일 4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에는 뉴질랜드 한인학교 협의회 회장(회장 고정미, 와이카토 한국학교 교장) 주최로 제6회 우리말 말하기 대회가 남섬 킨스타운에서 열렸다.

고 교장은 “한글학교의 교훈은 ‘한국인으로 뉴질랜더로 세계인으로’이다.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거주국의 충실한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학교도 번듯하게 짓고 유치원에서 노인대학까지 아우르는 한인 교육센터를 짓는 게 꿈이에요. 뉴질랜드 사람들에게도 문호를 열어줘야죠.” **장**

재단 이사장, 미국 앵커리지한인회관 개관식 참석

재외동포재단 김경근 이사장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엿새 간 미국 앵커리지와 시애틀을 방문했다.

김 이사장은 8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다목적한인회관 개관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동포단체대표 및 한글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포사회 현안과 한글학교 운영 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시애틀에서도 동포단체대표와의 간담회를 갖고, 현지 동포사회 현안을 파악하는 한편 동포재단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



9월 8일 알래스카 앵커리지 다목적한인회관 개관으로 알래스카지역 7천여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 개관식에는 댄 설리번 앵커리지 시장(좌측 세 번째)과 김경근 동포재단 이사장(좌측 네 번째), 미드 트레드웰 알래스카 부주지사(좌측 다섯 번째)들이 참석했다.

한편, 앵커리지 다목적한인회관 건립은 알래스카지역 7천여 한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앵커리지한인회와 건축위원회의 노력 끝에 개관을 맞게 됐다.

한글학교 교육사업,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MOU



재외동포재단은 서울대 평생교육원은 MOU를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재외동포 대상 교육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서울대 평생교육원(원장 장소원)과 21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재외한글학교 교육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재외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재외동포 대상 교육 운영을 공동으로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근 재단이사장은 “재단은 자원봉사자가 대다수인 재외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더 많은 교사들이 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사 사이버 연수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협력해 시행하게 될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한글학교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모집 공고를 내고, 11월 중순경에 본격적으로 연수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논문공모전 입상 발표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9월 20일 재단 주최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논문공모전' 입상작을 발표했다. 동포재단은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관심을 높이고, 차세대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논문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올해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많은 동포들이 응모했다.

동포재단은 재외동포 관련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5편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재단은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하고 논문집을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배포,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입상자 명단

• 우수상

재외동포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 이지영, 김지영 / 재중 유학생에 대한 국내 인식 분석과 관련 제고방안 제시 - 정경진, 이경진, 장우영

• 장려상

공생플랜을 통한 차세대 재외동포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젝트 - 김영명 / 인력 감소추세에 어긋난 방문취업제 쿼터 제한 - 박정은, 이웅희 /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으로서의 재외한인에 대한 고찰 - 허데니스, 이선영

사할린주 한인회, 한인문화센터 부지 매입

사할린주한인회(회장 임용군)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임차해 사용하던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부지에 대한 임차료 부담에서 벗어남으로써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할린주한인회는 2004년 8월 동 센터 건립 당시 러시아 정부와의 토지 임대계약을 통해 49년 간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매월 29만8천 루블(미화 10만 달러 상당)을 임차료로 지출해왔으나, 지난 7월 1일자로 토지 공시지가가 조정돼 매입가가 약 6배(미화 58만7천 달러) 상승함에 따라 임차료 역시 대폭 상승될 예정이었다.

이에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6월 사할린동포들의 민족정체성 유지 등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 센터의 부지매입비 8만 2천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재단의 부지매입비 지원은 일본 정부의 자금으로 건립된 동 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향후 한·러 양



러시아 정부로부터 땅을 임차해 사용하던 사할린한인문화센터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부지 매입으로 임차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 센터는 1997년 11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시 현지 잔류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사할린 내 한인문화센터 건립에 합의 후, 일본 정부의 자금(약 5억 엔) 지원을 통해 2006년 10월에 지상2층, 지하 1층의 건물로 개관됐다. 센터에는 한인회, 이산가족회, 노인회, 문화센터, 박물관, 의료실 등이 입주해 있다

이영현 한상 리딩CEO ‘英여왕 메달’ 받아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메달을 받았다.

유통업체 영리(YoungLee)무역의 이영현(71) 회장은 여왕 즉위 60주년을 기념해 각 분야에서 영국에 공을 세운 연방국 시민에게 수여하는 ‘다이아몬드 주빌리(Diamond Jubilee) 메달’ 서훈자로 뽑혔다.

이 회장은 토론토에서 45년간 사업에 몰두하며 남다른 열정, 성실함,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크게 일으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다이아몬드 주빌리’는 영국 여왕이 즉위한 지 60년째 되는 해를 기념해 거행하는 이벤트로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2세와 빅토리아 여왕만이 이 메달을 발행했다.

이 회장은 9월 10일 토론토 웨라톤호텔에서 한국계인 연아 마틴 상원의원으로부터 메달을 전달받았다.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틴 캐나다 총독은 영국 여왕을 대신해 마틴 의원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캐나다의 우수한 한인 경제인들을 대표해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후배에게 모범을 보이고 차세대 육성에 남은 인생을 바쳐 훌륭한 한

국인이 많이 배출되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66년 토론토로 아이스하키 유학을 갔다가 정착한 그는 단돈 200달러를 사업 밑천으로 시작해 연매출 1조 원에 이르는 ‘거상’의 반열에 올랐다. 1970년 대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만 고집하며 현지 시장에 한국산을 공급해왔다.

캐나다 한인 경제인의 ‘대부’로 불리며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12대 회장을 지냈고 2008년 ‘1억 달러 수출탑’을 받았다. **창**



캐나다에서 유통업체 영리 무역을 운영하는 이영현(71·사진 오른쪽) 회장이 영국 여왕즉위 60주년을 기념해 ‘다이아몬드 주빌리(Diamond Jubilee) 메달’ 서훈자로 뽑혔다. 사진 왼쪽은 연아 마틴 상원의원

“재외국민 보호 위한 법률지원체계 마련하겠다”

유영일 세계한인변호사회 신임회장



“세계한인변호사회는 전 세계 회원들이 ‘한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기초로 모인 조직이다. 이런 응집력을 토대로 시장 개방 시대에 회원 간 선의의 경쟁 속에 윈-윈(Win-Win)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보겠다.”

앞으로 2년간 세계한인변호사회(IAKL)를 이끌어갈 유영일(55) 신임 회장(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경쟁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강조했다.

그는 9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옴니호텔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한인변호사회 연차총회에서 회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유 회장은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의 예비 법조인 급증 등 경쟁 환경의 변화를 양적·질적 발전의 계기로 삼아 IAKL이 새롭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법조인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 실정에 밝고 국제 감각을 갖춘 한인 변호사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상에 따른 첫 사업으로 IAKL은 연차총회 기간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은 해외 로스쿨의 국내외 예비 법조인을 초청해 멘토링 세션을 마련한다. 유 회장(지적재산권)과 조문현 전임 회장(회사법)을 비롯해 유니스 김 이화여대 교수(금융법), 최정환 사

무총장(엔터테인먼트법), 이세인 부산대 교수(국제거래법) 등 10여 명이 멘토로 나선다.

유 회장은 임기 내 공익사업 기능을 확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주 노동자, 해외 입양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조 전 회장이 입양인을 위한 법률 지침서를 만들어 내달 초부터 인터넷에 연재하는 한편 연말에 책으로 펴내려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IAKL은 지난해 2월부터 한인 변호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본격화하고 회원들도 적극 호응해 회원 수가 국내 500명을 포함, 1천500명에 이른다. 총회 참석자 수도 2010년 250명에서 지난해 서울총회에는 30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4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8년 사단법인으로 창설된 IAKL은 2009년 9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이민, 사건·사고 처리, 소송 등에 필요한 국내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의 회원 16명이 네이버 ‘지식iN’ 코너에서 미국 이민법, 국내의 법률, 의료정보 등 매주 20~30개의 질문에 답변해주고 있다.

해외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IAKL로 연락하면 현지의 적절한 회원을 물색해 소개해주기도 한다. LA 총회 기간에도 현지 동포나 일시 체류자 등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회장은 온두라스에서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구금된 한국 여성 한지수(29)씨가 2009년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는 과정에서 국제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톡톡히 발휘했다. 그는 “사법심사와 이에 관련된 법률가의 역할이 인권 보호에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했다. 전 세계 한인 변호사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이 경험을 살려 IAKL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힘을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



우리말에는 비슷한 뜻을 가지면서도 그 쓰임새는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또 뜻으로는 맞게 쓰인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관계의 말이어서 피해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면서도 뜻을 잘못 알고 쓰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선택하는 예를 들어 올바른 한국어 사용법을 알아본다.



에다/ 에이다

24절기 중에서 스무 번째 절기는 '소설(小雪)'이다. 옛날과 요즘의 겨울 날씨를 비교해 보면 옛날이 훨씬 더 춥고 고생스러웠다는 느낌이 든다. 요즘은 지구 온난화 현상도 있고 또한 예전에는 지금보다 우리의 생활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더 춥게 지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한겨울에 기운이 푹 떨어지고 찬 바람까지 불 때 마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추위를 느껴 본 적이 있었을 텐데, 이 같은 추위를 말할 때 '살을 에는 듯한 추위'라고 할까 아니면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라고 할까?

이때는 '살을 에는 듯한 추위'가 맞는 표현이다. '에다'란 말은 예리한 연장으로 도려낸다는 뜻인데, 그밖에도 '가슴을 에는 듯한 슬픔'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에다'를 '에이다'로 말하는 것은 '이'를 불필요하게 첨가해서 나온 결과다. 그 외에도 자주 틀리는 표현이 많다. 예를 들어서 '가슴이 설레다'를 '설레이다'로 말한다면, '날이 개다'를 '개이다'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설레다, 개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면, 흔히 애인한테 딱지를 맞았다고 할 때 'OO에게 채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때는 거절하고 버린다는 뜻의 표현인 '차다'의 피동형으로 쓰인 것인데, '차다'의 피동형은 '채이다'가 아니라 '채다'이다.

백중지간(伯仲之間)

두 사람의 실력이 비슷해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때 흔히 '두 사람의 실력이 막상막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백중지간(伯仲之間)'과 '호각지세(互角之勢)'라는 한문 성어가 있습니다.

우선 '백중지간'에서 '백중(伯仲)'은 '말 백(伯)자'와 '버금 중(仲)자'를 써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형과 그 다음'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뜻으로 '백중'이라는 말은 인물이나 기량 등이 서로 비슷하여 우열이 없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요. 이것을 '백중지간'이라고도 하고 그냥 줄여서 '백중'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 경기에서 두 팀의 실력이 비슷할 때 '백중한 경기' 또는 '두 팀의 실력이 백중지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각지세'에서 '호각(互角)'은 '서로 호(互)자'와 '뿔 각(角)자'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뿔'은 '소의 뿔'을 뜻합니다. 그래서 '호각'이라는 말은 쇠뿔의 양쪽이 서로 길이나 크기가 같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뜻이 확장돼서 둘을 비교해 볼 때, 가지고 있는 기량이나 힘이 비슷해서 낫고 못함이 없음을 뜻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 장해

휴대 전화 보급률이 높다 보니 이로 인한 문제점도 많다. 강의실이나 회의실, 또는 음악회 같은 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벨이 울려 대서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큰 병원에는 휴대 전화를 꺼 놓으라는 안내문이 있다. 그리고 비행기 이착륙 시에도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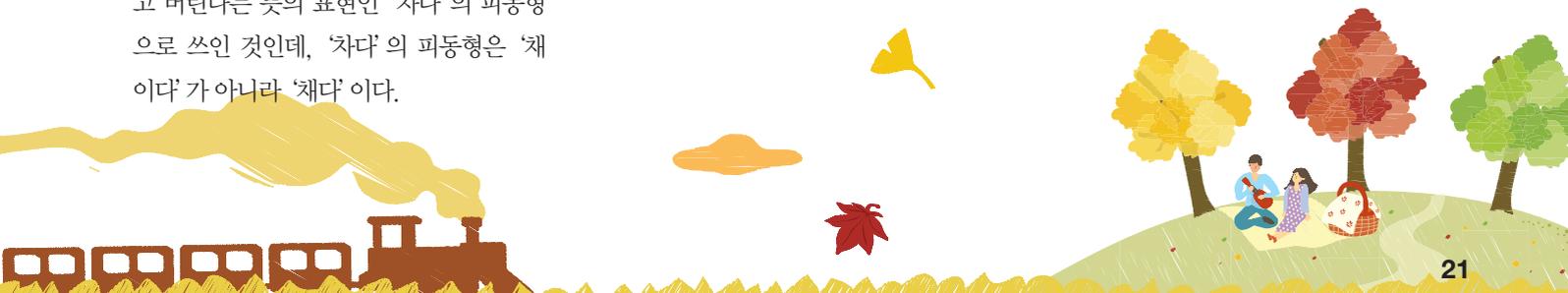
이것은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계 작동이나 전파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장애'와 '장해'라는 표현 중에서 어느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가?

두 표현의 글자 모양이나 발음이 서로 비슷해서 혼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장애'가 맞다.

'장애(障礙)'라는 것은 가로막아서 거치적거리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통신 장애'라든가 '전파 장애' 같은 표현을 쓸 수 있고, 또 육상 경기 중에서 '장애물 경기'라는 것도 있다.

반면에 '장해(障害)'라는 것은 거리껴서 해가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담배는 폐에 큰 장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장**



중간선

신유니(중국) 초등부문 최우수상



“또르륵”

나의 원주형 고무지우개가 팔꿈치에 밀리어 중간선을 넘어 갔다.

“오늘부터 무엇이든 중간선을 넘어 오면 가지기다.”

영호는 부리나케 고무지우개를 자기의 필갈통(필통)에 집어넣고 선포했다.

정말 한심한 애다. 자기는 책가방까지 내 책상 앞에다 척척 놓다가 어쩌다 중간선을 넘어간 고무지우개를 가지려드니 말이다.

“그럼 너의 것이 넘어와도 내가 가지는 거다.”

“응, 그래”

“너 말하면 말한 대로 해야 한다. 약속을 어기면?”

“난 남자니깐 꼭 말하면 말한 대로 한다. 만약 내가 약속을 어기면 너를 누나라고 부를게.”

나는 속으로 웃었다.

(평소에 늘 자기 혼자만의 책상인 것처럼 다 차지하고 쓰던 그가 갑자기 그 버릇을 뗄 수 있을까? 히히 버릇 좀 고쳐줘야지)

영호는 처음엔 중간선을 넘어올까 봐 많이 조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옛 버릇이 도지기 시작하였다.

“또르륵 또르륵”

연필이 굴러오고 고무지우개가 굴러오고...

나는 넘어오는 족족 필갈통에 주워 넣었다. 영호는 씩씩거리면서도 약속한바가 있어 머리만 뻑뻑 굽었다. 네 번째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연필 세대나 나에게 몰수당한 영호는 나를 보고 사정하였다.

“이젠 쓸 연필이 없구나. 한대만 빌려라 다 쓴 다음 다시 줄게.”

“안 돼! 누나라고 불러. 그러면 한대가 아니라 다 줄 테니까.”

영호는 성이 나서 주먹을 들었다가 자기가 한 다짐이 생긴 나인지 주먹을 내리우고 나를 흘겨보고는 다른 아이들의 연필을 빌려 썼다. 나는 더없이 깨고소했다

(흥, 날 그렇게 애먹이더니 잘코사니야.)



그런데 깨고소한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다. 글씨 네 번째 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린 후 학용품을 정리하다가 부주의로 떨군 자동연필이 또르르 굴러 중간선을 넘어갈 줄이야.

“헤헤, 오늘 재수가 참 좋아. 콩다리 연필 몇대로 값비싼 한국 자동연필과 바꿨으니… 히히”

영호는 자동연필을 쥐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아까웠지만 별수가 없었다. 중간선을 넘어가면 가진다고 약속했고 또 나도 중간선을 넘어온 그의 연필이며 고무지우개를 가졌으니까.

나는 너무 아쉽고 애가타서 막 울고 싶었다. 한국 간 이모가 기념으로 사준 자동연필을 눈을 뻘히 뜨고 빼앗기게 되었으니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는가? 내가 애가 타는 것을 본 영호는 알뜰하게 히죽히죽 웃으며 자동연필이 잘 써진다니 질이 좋다느니 하면서 약을 올렸다.

점심시간이 돼 애들이 광밥(도시락)을 먹느라고 야단이었지만 나는 조금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그러는 나를 보고 영호는 마음이 좀 약해졌는지 더 약을 올려주지 않고 밥을 먹으며 나를 조심스레 건너다보곤 했다. 나는 생각할수록 아쉽고 슬펐다. 그래서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아 책상에 마구 엎드렸다.

“너 우는 거니?”

영호가 조금 당황한 소리로 물어왔지만 나는 엎드린 채로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럼 이 자동연필을 가져. 네가 우니깐 나도 마음이 별루다.”

영호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 그를 콧 밀쳐버렸다.

“가라. 보기 싫다.”

오후시간이 되자 영호는 울적해 앉아있는 나의 눈치만 살폈다 마치 나에게 큰 죄를 짓기라도 한 듯이 말이다. 나는 자동연필 생각에 오후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몰랐다 마지막 시간이 끝나서 힘없이 학용품을 정리하는데 “또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연필이 내 앞으로 굴러왔다.

내가 너무 기뻐 번개같이 주어들고 영호를 쳐다보니 영호가 뒤통수를 긁으며 히죽히죽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에서 영호의 마음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해죽 웃으며 필감통을 열고 그의 연필이며 고무지우개를 “또르르 또르르” 굴러 보냈다.

그 후부터 우리 둘의 책상엔 중간선이 없어지고 “또르르 또르르” 연필이 오가고 정이 오갔다. **[장]**



옹기의 숨소리... 고래의 노랫소리... 울산

울산은 4개 구(북구, 중구, 남구, 동구)와 1개 군(울주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면적이 1천km²가 넘는다. 지도를 보면 동쪽의 도심 4개 구를 울주군이 입을 크게 벌려 물고 있는 형국이다. 장생포와 대왕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광 명소는 역사가 길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울주군에 자리해 있다.

살아 숨 쉬는 옹기의 신비

흙(土), 물(水), 불(火), 바람(風).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본으로 보았던 네 가지 요소다. 울산에는 이 네 가지를 기막히게 잘 다루는 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옹기마을이다

외고산옹기마을은 현재 전국에서 사용되는 옹기의 50% 이상을 생산한다. 커다란 장독부터 작은 화분까지 하루 평균 100여 개의 옹기를 만들어낸다.

옹기는 숨을 쉰다. 옹기 조각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1천500배 이상 확대하면 미세한 구멍이 무수히 발견된다. 옹기의 숨구멍은 뛰어난 통기성으로 물이나 곡식을 오랫동안 보존시킨다. 또 김치, 장류, 젓갈 등의 발효를 도와 가장 좋은 맛을 끌어낸다.

1960~70년대 이 마을은 200여 명의 도공을 비롯한 400여 명이 옹기업에 종사해 전국 최대 옹기마을을 이루었다. 14기의 가마에서 만들어진 옹기들은 남창역을 통해 전국 각지로 팔려나갔다. 또 일본, 미국 등 해외로도 수출됐다.

전통 옹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줄자 옹기마을도 쇠퇴해 현재 옹기의 맥을 잇는 도공은 40여 명으로 감소한 상태다.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최근에는 울산시와 공동으로 옹기엑스포를 열고 있다.

역새평원의 갈대 '장관'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신불산(1천159m)은 가을 정취를 즐기기에 좋다. 10월이면 정상 부근에 역새가 활짝 꽃을 피워 가을 산행 코스로 인기가 높다.

신불산은 울산, 경남, 경북 접경지를 따라 해발 1천m가 넘는 산들이 병풍처럼 이어진 '영남 알프스'의 중심부다. 북쪽의 간월산과 남쪽의 영축산을 잇는다.

역새평원은 신불산이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로 뽑히는 데 기여한 일등공신이다. 매년 가을이면 능선을 따라 흐드러진 역새꽃의 물결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신불산과 간월산이 만나는 간월재에는 20ha 이상의 광활한 역새 군락지가 형성돼 눈길을 사로잡는다. 역새꽃이 필 무렵 간월재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등산객과 패러글라이딩, 산악자전거를 즐기려는 동호회로 북적거린다.

선사인이 남긴 걸작, 반구대 암각화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는 울산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암각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태화강 지류인 대곡천변 절벽에 있다. 물길 건너 암각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전망대에 두 개의 망원경이 설치돼 있다. 암각화가 물에 잠겨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서인지 망원경 옆에 초대형 실물 사진을 세워 놓았다.

암각화 전체 화면에는 고래, 물개, 거북 등 바다동물과 호랑이, 사슴, 염소 등 육지동물 그리고 탈을 쓴 무당, 사냥꾼, 배를 타고 있는 어부, 목책, 그물 등 다양한 종류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 1 울산시 울주군은 9월 25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2012 울산옹기축제'를 열어 52만여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았다. 다녀가는 등 올해 축제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29일 폐막했다
- 2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자락 가운데 황금역새군락지로 유명한 신불산 간월재를 찾은 등산객들이 가을의 여유를 느끼며 등산하고 있다.
- 3 암각화 전체 화면에는 고래, 물개, 거북 등 바다동물과 호랑이, 사슴, 염소 등 육지동물 그리고 탈을 쓴 무당, 사냥꾼, 배를 타고 있는 어부, 목책, 그물 등 다양한 종류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 4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에 있는 고래박물관이다. 포경 유물을 수집·보존·전시하고, 고래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1

‘글로벌 성공시대’ 동영상 오픈

코리안넷(www.korean.net) 한국관에 ‘글로벌 성공시대’ 동영상 이 오픈했다. ‘글로벌 성공시대’는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포를 소개하는 코너로 경제, 문화, 스포츠, 예술 분야 등의 다양한 명사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10대 재벌에 들어가는 ‘코린도’ 그룹을 경영하는 승은호 회장을 비롯해,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 CEO 김성주, 맨손으로 일군 브라질 패션신화 이원규, 북유럽 최고의 음악트리오 홍수진·홍수경 자매, 일본 축구 J리그를 달군 윤정환 감독, 가봉 대통령 경호실장 박상철, 미국인의 마음을 빼앗은 리더, 강석희 어바인 시장 등 30여 명의 성공한 한인을 만나 볼 수 있다.

꿈을 꾸고 또 어떻게 도전하며 시련을 극복해왔는지 생생



한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 국내외 동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데 좋은 교재가 될 전망이다.

‘우생이 시즌2’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코리안넷 (www.korean.net) 독자 참여마당에 ‘우생이(우리들의 생생한 이야기) 시즌2’가 시작됐다. 국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경험한 살아있는 외국생활 이야기를 맘껏 풀어놓는 공간이다.

‘우생이’는 이미 시즌1에서 외국생활의 노하우, 최고의 음식, 만만의 여행지, 혼자 알기 가까운 에피소드 등 생생한 이야기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새롭게 만날 시즌2에서는 어떤 에피소드가 올라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다.

독자후기 _ 송기호 필리핀

해외에서 살다보면 동포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지만 때로는 현지인만도 못하게 타인처럼 지내기도 한다. 누구를 탓하랴. 이민 생활이 각박하다보니 마음의 문이 닫힌 걸. 그렇지만 가끔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보면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래야 내 스스로가 위로가 될 거 같기 때문이다.

15년째 필리핀에서 살다보니 많은 한인들이 스쳐 갔다. 1~2년 만에 짐을 싸고 도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동남아의 다른 나라로 간 사람도 있다. 정착을 잘해서 이 땅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많다.

필리핀에는 한국계지만 한인 사회와는 별 왕래가 없는 그늘진 사람들이 있다 ‘코피아노’로 불리는 한인 2세들이다. 사연마다 다 기구하고 악의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겠지만 딱한 처지다. 우리도 그들에게 눈을 돌려야겠지만 고국도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재외동포의 창’ 9월호에서 멕시코 한인후손의 모국체험 기사를 읽었다. 애니깁을 불리는 이들은 불행했던 과거의 아픔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데 모국에서 이들을 초청해 격려하고 정체성을 심어준다니 반가운 일이다. ‘코피아노’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www.hansang.net

제 11차 세계 **한상** 대회

THE 11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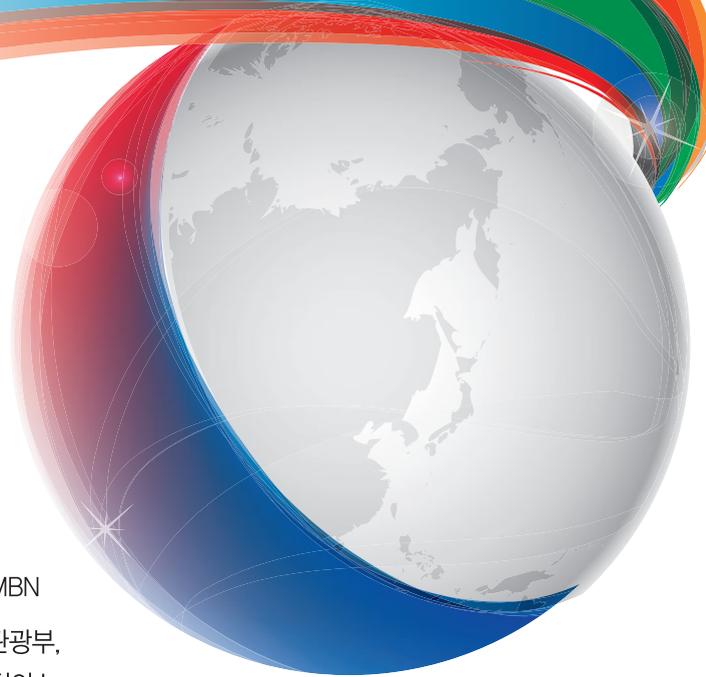


2012. 10. **16**(Tue)-**18**(Thu), 서울 코엑스 **coex**

Global Korean Strengths,
'Hansang Network'

글로벌코리아의 힘,
'한상 네트워크'

- | **주최** | 재외동포 경제단체
- | **주관** | 재외동포재단, 서울특별시, 매일경제신문·MBN
- | **후원** |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720만 재외동포가 하나되는 그날까지

재외동포재단 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 어디에 살더라도 당신은 자랑스런 한인입니다.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모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하나가 되는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